

필리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300천 Km ²	G D P	1,686억 달러 (2008년)
인구	9,035만 명 (2008년)	1 인 당 GDP	1,866달러 (2008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 공화제	통화단위	Peso
대외정책	친서방 민주주의	환율(달러당)	44.47 (2008년 평균)

- 필리핀은 1565년부터 스페인 및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며, 1943년에는 일본에 의해 점령을 당하기도 하였음.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태평양에 둘러싸여 타이완섬과 보르네오섬, 셀레베스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동, 니켈, 임산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9,035만 명에 달하는 동남아 주요 국가임.
- 지역 및 계층간의 심한 소득격차, 정치권의 부정부패, 회교 반군과의 오랜 분쟁 등으로 정치, 사회의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음.
- 2001년 1월 아로요 정권이 들어서면서 서방 각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으며, 경제구조 개혁, 빈민계층 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었음. 2010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국 혼란이 예상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제성장률	5.0	5.4	7.1	3.8	1.5
재정수지 / GDP	-2.7	-1.0	-0.2	-0.9	-3.6
소비자물가상승률	7.6	6.3	2.7	9.3	2.9

자료: IMF, EIU.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세 둔화

- 필리핀은 2004년부터 4년 연속 연 5% 이상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2007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가, 정부지출 확대,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높은 성장 등으로 인해 7.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와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2008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3.8%로 둔화되었음.
- 세계경기의 회복이 아직 불투명하나, 2009년 2/4분기부터 해외근로자 송금,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국내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이 완화됨에 따라, 필리핀 경제는 2009년에 당초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서 변경되어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수요 감소 및 상품가격 하락에 따라 물가 안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4년부터 3년간 평균 6~7%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7년에는 식료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폐소화 강세로 인해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2.7%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08년 상반기 중에는 주요 식료품 가격 및 유가가 상승하면서 2008년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전년 동월 대비 12.4%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석유 수요 감소에 따른 유가 급락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 압박의 완화로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2008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3%를 기록하였음.
- 소비수요 감소 및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2009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년 이래 최저인 전년 동월 대비 0.2%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2009년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10년에는 국제 상품가격의 회복 및 폐소화 가치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로 상승할 전망이다.

□ 금리 동결 및 환율 상승 전망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2008년 11월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을 21%에서 19%로 인하하였으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200bp 인하하였음(현재 기준금리 6%). 2009년 8월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현 금리수준에서 통화완화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중 미달러화 대비 폐소화 가치가 약 15% 하락한 이후(1월 2일 41.41폐소/달러 → 12월 24일 47.49폐소/달러), 2009년 들어서는 평균 48 폐소/미달러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었음. 2010년에는 재정적자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위축,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율 둔화, 2010년 대선을 앞둔 국내정치 불안, 민다나오 (Mindanao) 지역의 이슬람 세력에 의한 사회 불안 등으로 폐소화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증가 예상

- 필리핀은 세수기반 취약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나, 2002년 이후 정부의 긴축정책과 재정수지 적자 해소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왔음.

-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 국영 통신회사의 민영화 등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 재정수지 적자는 10년 만에 최저인 GDP의 0.2%를 기록하였음. 2008년에는 식료품 지원 및 현금보조금 지급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정부지출은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는 감소하여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0.9%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 민영화 자산 매각 부진 및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에도 적자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 2009년 7월말 현재 민영화 자산 매각금액: 6억 6,400만 페소(2009년 목표(125억 페소)의 5.3%)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유류 등 연료에 대한 높은 수입비중

- 필리핀은 유류 등 연료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의 상승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 및 경제성장률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필리핀의 하루 평균 원유 수입량은 353,700 배럴이며 (2008년 중), 세계 29위 수준임.

□ 수출구조의 취약성

- 총 상품수출에서 전자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수출품목 다변화가 부족한 상황이며, 총 수출의 30% 이상이 미국과 일본 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 * 2008년 총 수출액의 17.2%를 미국, 16.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 상품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근로자 송금이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을 정도로 필리핀 경제는 해외근로자 송금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액: 124.8억 달러 (2006년) → 132.6억 달러 (2007년) → 145.4억 달러 (2008년)

□ 과중한 외채상환 부담

- 전반적으로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GDP 대비 총 외채잔액은 높은 수준임.

* GDP 대비 총 외채잔액 (2008년 기준): 39.2%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노동력 등 성장 잠재력 보유

- 풍부한 광물자원, 인구 9,035만 명에 달하는 내수시장, 영어에 능통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추진 일관성 부족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왔으며, 소득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 콜센터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

- 필리핀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¹⁾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 중 콜센터는 BPO의 핵심 산업임. 인도와 함께 전 세계 콜센터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100개가 넘는 기업에서 약 12만 명이 콜센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1) 주로 비용 절감을 위하여 콜센터, 재무, 회계, 인사, 교육, 서비스 등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일부를 다른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함.

- 필리핀은 영어에 능통한 노동력이 많아 콜센터 서비스 사업 유치에 유리하며, 정부가 콜센터 서비스 직원 전문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 * 필리핀 정부는 콜센터 육성을 위해 외국 투자기업에 설립 후 4~8년간 법인세 면제, 법인세 면제 기간 종료 후 5% 세율 적용, 수입 자본재에 대한 세금 면제, 위탁장비의 제약 없는 사용, 외국인 고용 허가 등 여러 혜택을 주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재정수지 적자 축소 노력

- 세수기반 부족 및 조세징수 제도 미비 등으로 2002년 GDP 대비 재정수지가 -5.4%에 달할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아로요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의 증가 등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 개선 노력을 한 결과,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는 GDP의 -0.2%까지 축소되었음.
- 그러나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및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다시 증가해 2009년에는 GDP의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로요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0년까지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조세제도 개선 노력

- 2009년 초 필리핀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개인소득세 공제 확대, 최저임금 근로자 소득세 면제, 법인세율 인하 (35% → 30%), 개인퇴직연금 납부액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등 세제 완화 조치를 도입하였음.
- 한편,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투자에 대한 일부 재정적 인센티브 폐지, 알코올 및 담배제품 소비세에 대한 구조 조정,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비용 공제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0년 6월 아로요 대통령의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당분간 추가적인 세제 개편 및 경제구조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 상 수 지	1,984	5,347	7,119	4,227	6,787
경 상 수 지 / GDP	2.0	4.6	4.9	2.5	4.4
상 품 수 지	-7,773	-6,732	-8,391	-12,582	-10,405
수 출	40,263	46,526	49,512	48,202	37,314
수 입	48,036	53,258	57,903	60,784	47,719
외 환 보 유 액	15,926	20,025	30,211	33,193	34,710 ^{주)}
총 외 채 잔 액	61,658	60,282	65,845	66,118	65,647
총 외 채 잔액/GDP	62.4	51.3	45.7	39.2	42.2
D. S. R.	16.0	18.9	13.3	15.8	17.8

주: 2009년 5월말

자료: IFS, EIU

□ 상품수지 적자 규모 확대

- 필리핀의 상품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전자제품, 반도체 등의 수출이 부진했던 반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12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 식료품 및 연료가격의 하락폭이 더 커 상품수지 적자가 104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지속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이전수지 증가, 관광 및 BPO 부문의 호조로 인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으로 경상수지는 흑자가 지속되어 2007년 7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서비스수지의 흑자 기록 및 소득수지의 흑자 전환(2007년 9.9억 적자 → 2008년 2.5억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에 비해 40.6% 감소한 4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상품수지 적자 감소, 서비스수지 및 이전수지의 흑자 지속으로 2009년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도 GDP의 2.5%에서 4.4%로 상승한 6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숙련된 필리핀 근로자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호주, 한국 등 주요 필리핀 근로자 고용국가들과 고용계약 협상을 통해 해외근로자 고용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낮은 대외지급불능 발생 가능성

- 2003년 이래 외채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 편이며, 2008년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중이 약 39%로 외채상환 부담은 다소 과중한 편으로 판단됨.
- 필리핀의 외채상환부담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최근 D.S.R.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이 약 5개월분의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09년 1월 필리핀 정부는 2009년도 아시아 최초로 15억 달러의 채권(10년 만기, 발행금리 8.5%)을 발행한 데 이어, 동년 7월 7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10년 만기, 발행금리 6.625%)을 발행함으로써 2009년 해외차입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하였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아로요 대통령 임기 말까지 정권 유지 전망

- 2008년 11월 야당의 4번째 탄핵안이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아로요 대통령은 2010년 6월 임기 말까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다음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기가 2009년 10월 이후로 사실상 대선정국 상황에서 더 이상의 탄핵 시도는 실효가 없기 때문임.

□ 아로요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정권 유지 시도

- 아로요 대통령은 정권 유지를 위하여 현행 대통령 중심제(양원제)에서 총리가 이끄는 의원내각제(단원제)로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야당은 아로요 대통령이 총리로서 재집권을 하거나 대통령 단임제(6년 임기)를 폐지하고 재선에 출마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음.

□ 2010년 5월 대통령 선거 실시

- 2010년 5월 대선 및 총선(하원 및 상원 1/2석)이 실시될 예정이며, 아로요 현 대통령은 헌법상 재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으며, 출마하더라도 지지도 하락으로 당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뚜렷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2009년 6월 현지 여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야당 상원의원이자 부동산 거물 마누엘 빌라(Manuel Villar Jr.)가 응답자의 33% 지지를 받아 앞서가기 시작했음.
- 2위는 8% 포인트 차이로 조지프 에스트라다 (Joseph Estrada) 전 대통령이 차지하였으며, 이외의 대선후보들로는 놀리 드 카스트로 (Noli De Castro) 부통령, 마누엘 록사스 (Manuel Roxas II) 상원의원, 프란시스 에스쿠데로 (Francis Escudero) 상원의원,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그노 아키노 (Benigno Aquino III) 등이 있음.

- 카스트로 부통령을 제외한 야당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면 현 정권 반대세력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후보 단일화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2. 사회동향

□ 정치, 사회적 불안 요인 상존

-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국내 과격단체들에 의한 납치, 테러 및 무장충돌 등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 불안요인이 상존해 왔음. 민다나오섬의 회교분리주의 세력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MILF), 루손섬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인 신인민군 (New People's Army: NPA) 등이 대표적인 무장 과격단체임.
- 또한 고질적인 부정부패, 높은 실업률, 빈곤층의 불만 등으로 인해 대정부 항의시위가 빈번히 발생해 왔으며, 정치적 문제로 인한 군중시위도 자주 발생하는 편으로 1986년 2월 마르코스 전 대통령, 2001년 1월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축출도 국민들에 의해 주도된 것임.

□ 이슬람 반군과의 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 불안 고조

-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중재 아래 40여년에 걸친 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상안에 합의했으나, 가톨릭계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2008년 8월 대법원이 평화협상안 추진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이에 실망한 이슬람 반군들은 민다나오섬의 가톨릭 마을을 공격했고, 정부 역시 이에 무력 대응하며 이후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었음.

* 민다나오섬은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의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들이 이주해 오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음. 이로 인해 이슬람 세력들은 자치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와 투쟁을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음.

-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 간 평화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의 결과, 2009년 7월 휴전 유지, 가서명된 협상안 인정, 비전투원들을 보호를

위한 기구 설립, 평화절차를 지원할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국제 관계그룹 설립에 합의하였음. 양측간 이견으로 평화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영구적인 평화 정착 없이 서부 민다나오의 안보 상황은 불안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3. 국제관계

□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

- 필리핀은 ASEAN 회원국으로서 여타 회원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과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나, 양국간 급증하는 무역 및 투자에는 장애가 되지 않고 있음. 남사군도에 대해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국가들도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ASEAN을 중심으로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임.

□ 미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

- 필리핀은 과거 미국의 식민지로서 현재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2008년 기준 총 수출의 17.2%, 수입의 12.7%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은 민다나오섬의 이슬람 세력 진압 지원을 비롯해 필리핀과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08년 1월 양국은 군수물자협력협정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양국간 군사물자의 수송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협력을 약속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정상적인 채무상환

- 필리핀의 외채상환 부담은 큰 편이나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로 총외채잔액/총수출이 125.9%, D.S.R.은 17.8%로 전년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2 (2009. 3)	C2 (2008.11)
OECD	4등급 (2009. 4)	4등급 (2008. 4)
S&P	BB- (2005. 1)	BB (2003. 4)
Moody's	Ba3 (2009. 7)	B1 (2005. 2)
Fitch	BB (2003. 6)	BB+ (1999. 7)

* Euromoney: 79/186 (2008. 9) → 79/186 (2009. 3) → 78/186 (2009. 9)

* I.I.: 74/177 (2008. 3) → 74/177 (2008. 9) → 75/177 (2009. 3)

* I.C.R.G.: 80/140 (2008. 8) → 84/140 (2009. 2) → 75/140 (2009. 8)

- 무디스는 2009년 7월 필리핀이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과 양호한 대외지급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필리핀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 등급을 기존 B1에서 B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단기 인수가능, 한도적용 없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49년 3월 3일 (북한과는 2000년 7월 12일)
-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 (1969), 무역협정 (1978), 경제기술협력협정(1983), 이중과세방지협약 (1984), 투자보장협정 (1994)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필리핀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필리핀	2007	2008	2009.1~8	주요품목
수 출	4,420	5,016	2,798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판
수 입	2,438	3,099	1,658	반도체, 동제품, 곡실류
합 계	6,858	8,115	4,456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2009년 8월말 기준 필리핀 앞으로 총 7건, 788억 원의 EDCF 자금이 집행(8위 EDCF 수혜국)되는 등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필리핀과의 교역규모는 2007년 69억 달러, 2008년 81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도 2009년 6월말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3,350건, 1,152백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고 있음.

VI. 종합 의견

- 필리핀은 2004년부터 4년 연속 5% 이상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2008년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와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3.8%로 둔화되었으며, 2009년에는 국내소비의 회복세 및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위축 완화 등으로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수요 감소 및 국제 상품가격 하락으로 2008년 8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약 2.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 둔화,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정부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2009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6%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아로요 현 대통령은 2010년 6월 임기 말까지 추가적인 탄핵 시도 없이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5월 대선 및 총선 실시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예상됨. 한편, 필리핀 정부와 민다나오섬의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간의 평화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아직 평화 정착이 불확실한 상태임에 따라 동 지역의 안보 상황은 계속 불안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관광 및 BPO 부문의 호조에 힘입은 서비스수지 흑자와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꾸준한 유입 등으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외채부담은 다소 과중한 편이나, 외환보유액 증가 및 외채관련 지표 개선 등을 감안할 때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전문연구원 백 승 주 (☎02-3779-6648)

E-mail: sjpaik@koreaexim.go.kr